

# 允 姬

金正玉

<제주시-2도1동 1365번지>

나에게는 친구 윤희가 있다.  
윤희와 난 대학 1학년 부터 졸업  
까지 줄곧 단짝이었다.

시골이 고향인 나는 신학기가 시  
작할 때마다 이사를 했고 심지어는  
한때 윤희네 집 옆으로 옮아가기 까  
지 한단름 가까이 있고 싶어했다.

그러나 실상 외면적으로는 둘도  
없는 사이였지만 내적으로는 적지  
않은 갈등이 우리사이엔 있었다.

선의의 경쟁이랄까?  
일종의 질투가 보이지 않게 잠재  
해 있었다는 얘기다.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윤희는  
나보다 얼굴이 예뻐다.

신경질적인 나의 성격에 반해 윤희  
는 좀체 화를 내거나 덤벼대지 않  
는 차분한 성격이었다.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윤희의 인  
기는 나보다 압도적이었다.

학업성적도 나보다 나았다.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았지만 예  
써 윤희보다 내가 나온 점을 들자  
면 우리집이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  
했다는 것 뿐이었다.

윤희네집은 약수동 산 꼭대기에  
있었다.

글자 그대로 다 허물어진 판자집  
이었다.

윤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  
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윤희 어머니는 집에서 국수를 늘  
리 팔고 있었다.

물론 허가없이 몰래 하는 것이었  
다.

젖어지게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윤희는 한번도 어려운 내색이나 생  
활의 불만을 내색한 일이 없었다.

그게 윤희의 최선의 자존심이었  
다.

우린 4년동안의 우정을 나누면서  
졸업했다.

졸업후 윤희는 무역회사의 비서  
자리를 구해 취직했고 난 고향에  
내려와 교편을 잡게 됐다.

고향에 내려온 후에도 편지 왕래  
를 했다.

그러나 작년 1월에 접어 들면서  
거의 한달간 한통의 편지도 없었다.

그러다가 겨울 방학이 다가오던

이느날 우연히도 난 신문에서 윤희  
의 얼굴을 봤다.

난로 과열로 인해 화재 발생.

지난 밤 11시 40분경 약수동에  
서.

어머니는 사망.

달 26세의 노 윤희양 극작으  
로 구출됐으나 전신에 심한 화  
상으로 생명 위독…….

나는 다음날 서울행 비행기를 탔  
다.

윤희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심한 화상으로 특히 얼굴 부분은  
영양이 되어 있었다.

윤희의 예쁜 얼굴이 추악하게 우  
글거리고 있었다.

코가 비틀어지고 불이 뭉개지고  
입이 윤곽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상  
처가 심했다.

여자의 생명과 같은 얼굴이 형편  
없이 뭉개져 있었다.

극진한 의사들의 배려로 윤희는  
겨우 의식을 찾고 있었다.

보호자로는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며칠이 지난 뒤 윤희는 정형수술을 받았다.

그것도 일차 이차 삼차에 걸쳐서 받았다.

그러나 완벽한 원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는 의사의 얘기를 들었을 땐 난 병원 복도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다.

그것도 스물여섯의 다 큰 처녀가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말이다.

거기다 모든 비용이 문제로 남아 있었다.

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적지 않은 수술비용을 조달하기에 안달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윤희는 나아졌다.

그러나 윤희는 한모금의 물조차 다시기를 거부하였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나조차도 보려하지 않았다.

하찮은 부주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생각하며 수습해 일어설 수 없다는 나약함이 윤희를 지배하고 있었고, 윤희는 이미 죽을까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윤희의 정신적 치료와 나약함이 걱정이 되었다.

나는 꼬박 거울방학 석달을 서울에 있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병원을 들락거렸다.

처음에 윤희가 나조차도 만나려 들지 않았을 때 의사와 간호원들까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윤희를 설득

시켰고 그래서 우린 만날 수 있었다.

윤희는 온통 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었다.

윤희와 난 울었다.

윤희의 깊고도 깊은 눈에선 끊임없이 눈물이 내렸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난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수술비용과 입원비용등은 윤희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께 신세를 지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화재보험에 들어있지도 않았고 또 다른 어떤 대책도 없이 당한 일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신세를 질 수 밖에 없었다.

나는 고향에 내려와서도 졸곧 편지를 보냈고, 윤희도 드문 드문 답장을 보내왔다.

몸의 화상은 거의 회복이 됐고 얼굴도 아주 성공적으로 원래의 모습과 같게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써 보내왔다.

모든 면에서 회복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난 무엇보다도 기뻐다.

그러다가 다음엔 퇴원을 했다는 얘기도 보내왔고, 다시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지만 당분간은 혼자서 쉬고 싶다고 하는 얘기도 보내왔고 항상 사장님께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초조하고 답답하다는 걱정의 얘기도 보내왔다.

그 후 윤희의 화재사고가 있는 일년이 지난 셈이되는 올해 일월에는 조그만 수예점을 하나 하게 됐다고 소식을 보내왔다.

그런데 올 1월에는 서울가서 윤희를 꼭 만나고 싶었는데 나의 개인적인 바쁨으로 가지 못하고 말았다.

수예점을 차린 이후로 윤희도 바빴는지 소식이 뜸했고 나도 그러저럭 하다보니 마음은 하늘갈지만 자주 편지를 보내질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난 너무 반가운 소식을 받았다.

윤희가 오는 6월 17일에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다.

신랑감의 프로필은 비밀이라는 농담까지 곁들어 쓸 만큼 정신적으로 많이 밝아져 있는게 더욱 반가웠다.

난 꼭 갈 것이다.

그리고 윤희의 결혼을 진실로 축하할 것이다.

어쩌면 다시 물어버릴지도 모르겠다.

윤희와 불되고…….

프로필을 비밀로 해 두었던 윤희의 신랑에게 난 바랄 것이다. 화재로 입었던 외형적 아픔은 물론 마음의 상처도 말끔히 치유해 주고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윤희를 사랑해 주라고 감히 나는 명령(·)할 것이다.

난 벌써 마음이 들떠 있다.

윤희와 나와 윤희의 남편이 될 사람과 셋이 오붓이 앉아 향그럽고 구수한 코오피를 마시며 얘기할 수 있는 서울 어느 모퉁이의 조그마한 찻집 분위기를 생각하며 들떠 있는 것이다.

— 끝 —